

# 상호문화적 교육의 관점에서 독일영화 읽기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솔리노>, <미치고 싶을 때>, <바그다드 카페>

이광복  
(목포대학교)

**Lee, Kwang-Bok. (2012). Reading German fil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of cultural exchange: *Kirschblüten, Solino, Gegen die Wand, Bagdad Café*.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5, 136-151.**

Today, there are a multitude of papers being written on films that deal with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search on German films that deal with multicultural societies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 of cultural exchange. This paper chooses the following four German films and aims to examine them from that perspective – Doris Dörrie’s *Kirschblüten*, Fatih Akın’s *Solino* and *Gegen die Wand*, and Percy Adlon’s *Bagdad Café*. *Kirschblüten* is about longings for and communication with other cultures, *Solino* about cultural differences and ways to overcome them, *Gegen die Wand* about cultural conflicts and identities, and *Bagdad Café* about cultural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Wha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handling these movies in the classroom will be to raise and discuss relevant pedagogical questions to encourage the students to contemplate the various aspects of cultural encounters as their own issue. Thus, the ultimate goal of the education should be the learning of the values of coexistence, harmony, and exchange that are required of any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German Films, cultural exchange, educational perspective, cultural conflicts

## I. 들어가는 말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시대적 진단은 이미 오래 전에 내려졌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문화 현상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문화적인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12년 5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40만 명을 넘어서 남한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다문화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성찰은 여전히 미흡하다.

---

<sup>1</sup>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2012.10.30] 한편 독일에는 현재 67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어 전체 인구의 8.2%를 차지한다.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 [20102.10.30] 참조.

독어독문학 분야로 범위를 제한하여 살펴볼 경우, 문학과 영화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를 연구한 논문들과 이문화간 의사소통을 교육적 측면에서 다룬 논문들이 다수 있다.<sup>2</sup> 그러나 미디어 교육, 특히 영화교육의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를 다룬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독일영화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파스빈더(Rainer Werner Fassbinder)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Angst essen Seele>(1974)와 아킨(Fatih Akın)의 <미치고 싶을 때 Gegen die Wand>(2004)<sup>3</sup>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영화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문제를 다룬 파스빈더의 <카첼마허 Katzelmacher>(1969), 잔더스-브람스(Helma Sanders-Brahms)의 <시린의 결혼식 Shirins Hochzeit>(1976), 미셀비츠(Helke Misselwitz)의 <헤르츠슈프룽 Herzsprung>(1992) 등과 문화적 갈등 및 적응의 문제를 다룬 바저(Tevfik Başer)의 <40평방 미터의 독일 40qm Deutschland>(1985), 봄(Hark Bohm)의 <야세민 Yasemin>(1988), 아킨의 <짧게 그리고 고통 없이 Kurz und schmerzlos>(1998)와 <솔리노 Solino>(2002) 등이 있으며, 그리고 상호문화적 소통문제를 다룬 애들런(Percy Adlon)의 <바그다드 카페 Bagdad Café>(1987)<sup>4</sup>, 뒤리(Doris Dörrie)의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Kirschblüten>(2008) 등이 있다.<sup>5</sup>

이 글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를 다루고 있는 많은 영화들을 조사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해 적합한 독일영화를 선택하여 상호문화적 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sup>2</sup>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문학/문화 분야에서는 배정희. (2004). 최근 독일어권 문학에서 이주자문학의 현황. *독일문학*, 최윤영. (2006). 독일 이민문학의 현주소. *독어교육*, 최윤영. (2006). 낯선 자의 시선. 외즈다마의 텍스트에 나타난 이방성과 다문화성의 문제. *독일어문학*, 김완균. (2008). 다문화주의 시대의 문화상호적 문학텍스트 해석. *독일어문학*, 윤태원. (2008). 독일영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에서 나타난 외국인 문제 고찰. *독일언어문학*, 이숙경. (2009). 문화강의를 위한 모델 - 다문화 담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킨의 극영화 <천국의 가장자리>. *카프카연구*, 최경은. (2009). 독일영화에 나타난 이주민. *유럽사회문화*, 최석희. (2011). 다문화관점에서 본 독일영화 -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와 <미치고 싶을 때>를 중심으로. *세계연구* 등이 있다. 한편 독어학 분야에서는 하수권. (2005). 문화간 비즈니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가능성 연구. *독어교육*, 김미연. (2006). 이문화간 의사소통 교육방안. *독일어문학* 등이 있다.

<sup>3</sup> 영화의 원래 제목은 <Gegen die Wand>로 '벽을 향해서'라는 뜻이다. 영어권에서는 <Head On>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0월 제 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치고 싶을 때>란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sup>4</sup> 영화의 원래 제목은 <Out of Rosenheim>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소개할 때 붙인 영화제목 <바그다드 카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sup>5</sup> 시대별로 구분하면 1960년대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 소외를, 1970, 80년대는 문화적 갈등과 적응을, 1990년대는 이민 2세대의 정체성 문제를, 2000년대는 상호문화적 소통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상호문화적 관점과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뒤리의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아킨의 <솔리노>와 <미치고 싶을 때>, 그리고 애들런의 <바그다드 카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네 편의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아우르는 동경, 차이, 갈등,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각기 다른 비중으로 읽어내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자기성찰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독일문화가 다른 문화, 즉 아시아권의 일본문화(<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유럽권의 이탈리아 문화(<솔리노>), 이슬람권의 터키문화(<미치고 싶을 때>), 그리고 미국 문화(<바그다드 카페>)와 만나 형성되는 상호문화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 우리의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법적 구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독일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는 영화를 대학수업에서 다룰 경우에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위해 한 학기 동안 4편(3주마다 1편)이 적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II. 상호문화적 관점과 교육

독일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은 1980년대부터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을 대변하는 주요 학자로 비어라허(Alois Wierlacher), 발트만(Günter Waldmann), 뮐러-미하엘스(Harro Müller-Michaels) 등을 들 수 있다. 비어라허는 “상호문화적 소통의 행위지평”(Wierlacher, 1977, p. 77) 개념에서 출발하여 상호문화적 독어독문학(interkulturelle Germanistik)의 정립을 주장하였고, 발트만과 뮐러-미하엘스는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욕구, 관심, 능력, 동기와 의도를 가진 실제적인 학습자의 문화적 행위에 주목하여 ‘문화적 능력’ 대신에 ‘문화적 행위능력’을 학습목표로 내세우면서 상호문화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부터 상호문화적 관점은 자신과 타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경향이 생기면서 좀 더 다양해진다. 우선 크루체(Dietrich Krusche)는 “어느 특정한 역사적 위치에서 생겨난 문학은 수용의 이질적 조건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 잠재력이 더 특수화될 수 있다”(Krusche, 1990, p. 22)고 하면서 상이성(Alterität)을 작품해석의 동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비어라허는 타자성(Fremdheit)의 효소적(fermentativ) 기능에 주목하여 ‘텍스트 이해’란 “다른 것을 낫설게 하고 유효하게 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친숙해지는 것”(Wierlacher, 2000, p. 20)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두 사람은 텍스트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상이성과 타자성의 개념을 동원한 셈이다.

또한 상호문화적 관점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상호문화성 개념에 대한 정의들에서도 드러난다. 게멘데(Marion Gemende) 등은 다문화 사회의 맥락에서 ‘상호문화성’ 개념을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친연성과 차별성, 그리고 불

평등 사이에서 움직이는 문화적 현상들”(Gemende et al., 1999, p. 15)이라 이해하며, 알브레히트(C. Albrecht)는 “문화적 다원성을 자기 성찰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생긴 의식 과정 내지는 인식 과정”(Albrecht, 1997, p. 119)이라고 본다. 특히 알브레히트의 견해는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을 지향하려는 교수자(教授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상호문화적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간 차이를 대립이나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동인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 다양성을 자기 성찰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 텍스트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존, 융화, 소통이라는 다문화적 가치의 실현이 상호문화적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Ⅲ. 다문화 사회의 독일영화 읽기

#### 1.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타문화에 대한 동경과 소통

영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2008)은 독일 출신 도리스 뢰리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독일인 노부부 트루디와 루디가 죽음을 맞이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독일 바이에른 주의 시골도시 손가우(Schongau), 베를린, 오스트제(Ostsee), 일본의 도쿄, 후지산 기슭 등이다.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독일의 시골도시 손가우에서 한가롭게 살고 있던 트루디는 남편 루디가 암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남편에게는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지 않고 큰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 베를린을 방문하자고 제안한다. 슬픈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트루디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자기들 생활에 바빠서 부모를 돌볼 겨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오스트제로 다시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건강했던 트루디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 보낸 후 남편 루디는 트루디가 동경했던 나라, 즉 일본의 부토(Butoh) 춤을 배우려고 했었는데 자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루디는 아내의 옷가지 등 유품을 챙겨 아들 칼이 살고 있는 도쿄로 떠난다. 그러나 칼 역시 직장생활로 바빠 아버지에게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다. 혼자 낯선 도쿄 시내를 배회하던 루디는 어느 날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죽은 어머니와 소통하기 위해 부토 춤을 추는 소녀 유를 알게 되고, 서툰 영어로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루디는

유와 함께 아내 트루디가 무척이나 가보고 싶어 했던 후지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구름 속에 숨어 있던 후지산을 보기 위해 인근 여관에 머물던 루디는 어느 날 새벽에 혼자 깨어 아내의 옷을 꺼내 입고 후지산이 선명하게 비치는 호숫가로 간다. 거기서 죽은 아내 트루디의 환영과 함께 부토 춤을 추다 마침내 쓰러진다. 루디의 소지품 가방에서는 유에게 남긴 거액의 재산이 발견된다. 유와 같은 일본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 그림 1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의 한 장면



이 영화에서는 독일문화와 일본문화가 만나지만 다른 경우처럼 문화적 갈등이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동양의 문화에 일찍 마음의 빗장을 열었던 트루디와 달리 루디의 경우는 독일문화의 틀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지만, 죽은 아내가 미리 열어두었던 문을 통해서 일본문화와 접속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디가 일본 도쿄에서 경험하는 이질적인 문화는 호기심의 대상이 될 지언정 배척이나 갈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루디는 부토춤을 추는 일본 소녀를 통해 낯선 동양의 문화와 소통을 시도한다[그림 1]. 여기서 영화는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은 둘로 나뉘어지고 단절되고 고립된 개념 쌍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고 소통될 수 있는 개념 쌍임을 보여준다.<sup>6</sup> 결국 이 영화는 독일문화와 일본문화의 뿌리가 아무리 이질적이라 해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할 때 쉽게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up>6</sup> 이소영은 이 영화에서 삶과 죽음의 연결 고리로서 맺줄의 은유를 읽어내는 흥미로운 연구를 한 바 있다. 즉 일본 소녀가 빛나무에 진화선을 걸고 부토 춤을 추는 것은 죽음(죽은 어머니)과 삶(춤추는 소녀)이 소통하는 은유이고, 거울, 수면, 창 등에 비치는 형상은 분리의 은유이며, 후지산을 배경으로 죽은 트루디와 함께 추는 부토춤은 융합의 은유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소영, (2010). 영화의 복잡한 소통구조를 제시하는 은유 분석 - 영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에 나타나는 태생의 은유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pp. 81-90 참조.

상호문화적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을 자기성찰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면, 상호문화적 교육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다룰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1. 상호문화적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루디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2. 독일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읽을 수 있는 이미지 상징이나 표현은 무엇인가?
3.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엿보게 하는 상징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4. 상호문화적 소통의 관점에서 거울, 호수, 바다의 모티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5. 투루디, 루디, 유가 혼자서 혹은 함께 추는 부토 춤은 어떤 은유적 상징으로 읽을 수 있는가?
6. 우리나라 문화의 맥락에서 일본 부토 춤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은 부인의 옷을 입고 부토 춤을 추는 루디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7. 서양문화와 동양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2. <솔리노>: 문화적 차이와 극복

함부르크-알토나(Hamburg-Altona)에서 태어난 터키계 감독 파티 아킨은 이주민 2세대로서 몸소 체험한 다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솔리노>(2002)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저먼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온 아마토(Romano Amato) 가족의 이민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화는 1964년, 1974년, 1984년이라는 10년의 간격을 둔 시점에서 출항과 독일 정착, 두 형제의 성장과 가족의 균열, 귀향을 연대기적으로 다룬다.

### 그림 2

<솔리노>의 한 장면



이탈리아의 솔리노에서 어렵게 살던 로마노는 1964년 독일 경제기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내 로자, 두 아들 지지(Gigi)와 지안칼로(Giancarlo)를 데리고 일자리를 찾아 독일 두이스부르크로 이주한다. 로마노는 처음에는 탄광 노동자로 취업했으나 힘들어 그만두고 솔리노라는 이름의 피자 가게를 연다. 어려서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 지지는 독일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독일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한다. 아버지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는 독일어 통역을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우연히 피자가게에 들린 발디라는 이탈리아 감독을 만나고 나서는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운다. 반면에 형 지안칼로는 독일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지지와 지안칼로는 피자가게에서 부모를 돕지만 한편으로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다. 이를 계기로 집을 나가 형 지안칼로와 함께 생활하던 지지는 어렵게 구입한 촬영카메라를 가지고 여자 친구의 이야기를 단편영화로 만든다. 한편 피자가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독일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남편 로마노와는 다르게, 떠난 고향 솔리노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로자는 주방에 갇혀 사는 것을 힘들어한다. 10년 후 로마노의 외도와 로자의 발병으로 가정에 위기가 닥친다. 지지는 정신적, 육체적 요양을 위해 떠나는 엄마를 따라 솔리노로 간다. 반면에 독일에 있던 지안칼로는 지지가 남기고 간 영화를 루르지역 영화제에 출품하여 동생 대신에 최고상을 수상한다. 이 일로 지지는 독일로 형을 찾아가 화풀이를 하지만 다시 솔리노로 돌아가 영화감독의 꿈을 실현하면서 행복을 찾는다. 10년 후 지지는 형 지안칼로가 참석한 자신의 결혼식 축하연에서 독일에서 만들었던 첫 영화와 솔리노에서 만든 마지막 영화를 하객들에게 보여주고 “언제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면서 가장 가혹한 경쟁자”<sup>7</sup>였던 형을 껴안는다.

이 영화는 같은 기독교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온 이주민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갈등은 일어나지 않지만 가족 구성원이 겪는 문화적 갈등의 온도 차이는 잘 드러난다. ‘저먼 드림’을 꿈꾸는 이주노동자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로마노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 독일사회로 진입하려 하지만, 남편을 따라 독일로 왔던 로자는 피자 가게의 일이 힘들어지고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고향에 대한 향수에 깊이 빠지고, 병이 나자 요양 차 솔리노로 돌아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가 그곳에 있음을 확인한다. 1세대 이주노동자였던 로마노와 로자의 꿈과 좌절이 잘 형상화된 셈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다른 방식으로 독일문화와 만난다. 처음에 독일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형 지안칼로는 주로 어두운 독일문화를 체험한다. 가끔 물건을 훔치고, 같이 사는 동생의 여자 친구를

<sup>7</sup> 영화 포스터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Brüder sind immer die engsten Freunde und die bittersten Rivalen.” DVD: Solino. Wüste Film. 2002 표지 참조.

탐하고, 파티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린다. 그에겐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이란 전혀 없다. 그에 반해 지지는 독일문화와 소통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열심히 독일어를 배운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이웃 포토샵의 주인과도 친하게 지낸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피자 가게의 일을 열심히 도우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운다. 그러나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불화로 집을 나온 그는 형과 함께 살면서 첫 번째 영화를 찍는다. 그리고 잠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이탈리아로 갔던 지지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체득한 독일문화의 경험지평을 바탕으로 솔리노에서 영화감독으로서의 꿈을 실현한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일문화를 체험하고 자신들의 문화의 뿌리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상호문화적 교육을 위해 교수법적으로 제기할 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아마토 가족이 처음 독일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은 무엇이며, 가족 구성원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2. 이탈리아 솔리노의 문화정체성을 말해주는 대사나 상징적 이미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아마토 가족에게 고향 솔리노가 주는 의미의 층위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4.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지지가 만든 영화는 문화 통합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는가?
5. 영화의 형식미학적 측면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문화적 공간은 어떻게 대비적으로 그려져 있는가?
6. 광부나 간호원으로 갔던, 우리나라 출신의 독일 이주민 세대와 그 자녀들이 독일에서 겪었을 문화적 갈등을 이 영화와 비교해서 이야기 해보자.
7. 우리나라는 독일 이주민 1세대의 귀향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어떤 시각에서 펼쳐야 하는가? 남해 독일인마을의 예를 들어 이야기 해보자.

### 3. <미치고 싶을 때>: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앞에서 살펴본 영화 <솔리노>의 감독, 파티 아킨은 또한 함부르크-알토나에 거주하는 터키계 독일인 차히트(Cahit)와 독일에 온 터키이주민 2세대인 시벨(Sibel)의 독특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미치고 싶을 때>라는 영화를 내놓았다. 이 영화는 2004년 제54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하였으며, 독일에서 76만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을 정도로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였다.



## 그림 3

<미치고 싶을 때>의 한 장면



영화는 처음에 이스탄불의 술탄아흐메트 모스크를 배경으로(김유동, 2007, p. 394) 등장한 악단이 첫 번째 막을 알리는 음악을 끝내자 함부르크-알토나에서 혼자 사는 터키계 중년남성 차히트의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공연장에서 병을 줍는 일을 하던 차히트는 술집 손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차를 몰고 벽을 향해 돌진한다.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입원한 병원에서 그는 시벨을 만난다. 젊은 터키 여성인 시벨은 이슬람 문화를 고집하는 부모의 강요에 반발해 자해소동을 일으키고 입원 중이다. 차히트와 함께 병원을 몰래 빠져 나와 술집으로 들어간 시벨은 자유분방한 독일여성들처럼 살고 싶다<sup>8</sup>며 그가 터키계라는 이유만으로 느닷없이 결혼을 요청한다. 그러나 차히트가 거절하자 격분한 시벨은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소동을 벌인다. 그러자 차히트는 그녀를 일단 살리기 위해 억지 결혼을 해주기로 결심한다. 결혼식을 올린 후 처음에 차히트는 시벨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생활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지만 점점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시벨도 자신도 모르게 차히트에게 차츰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 바텐더 니코로부터 성적인 모욕을 당하자 차히트는 재떨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우발적인 살인을 하고 만다. 이 일로 차히트는 감옥으로 가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시벨은 이스탄불로 가서 차히트의 출소를 기다리기로 한다. 사촌언니 셀마가 매니저로 있는 호텔에서 일하면서 지내던 시벨은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해서 마약을 흡입하고 술집을 자주 드나든다. 어느 날은 술집에서 강간을 당하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치근대던 터키 남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가 한 남자로부터 복부를 칼에 찔린다. 다행히 택시운전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차히트가 출소하여 이스탄불로 그녀를 찾아오지만

<sup>8</sup> 시벨이 내뱉는 대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살고 싶어. 춤추고 싶고. 섹스하고 싶어. 더구나 한 남자와고만은 아니야.” (Ich will leben, ich will tanzen, ich will ficken. Und nicht nur mit einem Typen.)

시벨은 어린 딸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오랜만에 정사를 나눈 두 사람은 차히트의 고향 메르신(Mersin)에 가서 함께 살기로 하지만 시벨은 다음 날 버스 정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영화는 혼자 고향으로 가는 차히트의 모습을 비추면서 끝난다.

이 영화는 문화적 차이로 심한 갈등을 겪는 경계인의 정체성 찾기가 할 수 있다. 터기 문화와 독일 문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차히트는 차를 몰고 세차장 벽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하려 한다. 그러나 자살시도는 미수에 그치고 부상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시벨에 대한 점진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다. 반면에 가부장적인 터키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벗어나 독일 젊은 세대의 문화를 맘껏 누리려고 싶어 하는 시벨은 '위장 결혼'이라는 엉뚱한 선택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터키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다시 말해 독일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차이와 갈등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차히트와 시벨은 운명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다가 상처 입은 채로 정체성의 뿌리인 고향에 도착하여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 영화에서 형식미학적인 요소는 주제를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된다. 먼저 음악의 역할이 가장 눈에 띈다. 영화는 드라마처럼 5막의 구성형식을 취하는데, 막과 막은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보스포로스 해변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의해 구분된다. 오케스트라는 영화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네 번, 총 여섯 번에 걸쳐 등장하고, 이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부르는 여가수의 터키 민요는 영화의 내용을 암시하거나 정리,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첫 장면에서 여가수 세슬러(Selim Sessler)가 부르는 슬픈 발라드 샨니예(Saniye'm)는 차히트와 시벨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개될 것임을 미리 암시해 준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영화에 쓰이는 언어다. 무엇보다도 차히트가 자극적으로 내뱉는 거친 대사는 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언어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다음으로 카메라의 움직임과 편집에 주목해서 보면 차히트와 시벨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던 함부르크-알토나에서의 장면들에서는 컷의 숫자가 많고 장소의 변화가 심하지만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모색하게 되는 이스탄불의 장면들에서는 숏이 길고 카메라의 움직임도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외모의 변화를 통해서도 문화적 정체성 추구를 엿볼 수 있다. 처음에 손질하지 않은 머리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던 차히트는 출소 후 이스탄불로 시벨을 찾아갈 때는 단정한 모습으로 변해 있으며, 위장 결혼 후 진하게 화장하고 배꼽에 피어싱을 하는 등 이슬람 문화의 속박을 벗어 던지고 독일 문화 속으로 깊숙이 발을 들여

놓았던 시벨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짧은 머리에 단정한 복장을 한 모습으로 등장함으로써 그녀의 내적 성숙을 외모에 반영하고 있다.<sup>9</sup>

이 영화에서 상호문화적 교육의 관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차히트와 시벨이 겪는 문화적 갈등과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2. 대비되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함부르크-알토나와 이스탄불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3. 독일문화와 터키문화를 읽을 수 있는 은유적 표현이나 상징적 영상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이스탄불의 모스크를 배경으로 터키 악단이 연주하는 노래와 함부르크-알토나의 술집이나 집에서 흘러나오는 락(Rock) 음악은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5. 음악 이외에 카메라의 움직임, 편집, 미장센 등 영화의 형식미학적 요소들은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 찾기라는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6. 차히트와 시벨의 귀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귀향을 문화적 갈등의 해결책이라 볼 수 있는가?
7. 우리나라 독일 이주노동자 1세대의 귀향은 차히트와 시벨의 귀향과 비교해서 어떤 다른 의미망을 형성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4. <바그다드 카페>: 문화간 접촉과 소통

이 영화는 슈타른베르크(Starnberg) 호숫가 마을 암머란트(Ammerland)에서 태어나 뮌헨 대학을 졸업하고 바이에른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줄곧 바이에른 지역에서 살아온 퍼시 애들런이 1987년 독일과 미국의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한 영화다.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은 캘리포니아 사막지역의 도로변에 있는 바그다드 카페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애들런은 이 영화에서 미국문화와 접촉하는 독일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영화의 오픈닝 크레딧이 끝나면 바바리안 스타일의 전통복장을 하고 티롤 지방의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중년의 독일여성이 사막의 중간에 서 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로젠하임(Rosenheim)이란 소도시 출신의 야스민이

<sup>9</sup> 영화 <미치고 싶을 때>의 형식미학적 요소 중에서 언어, 편집, 의상 등이 갖는 기능에 대해서는 Schäffler, D. (2012). *Deutscher Film mit türkischer Seele*, Saarbrücken: AV Akademikerverlag, pp. 66-68 참조.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다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남편과 싸운 후 홀로 사막의 도로변에 남겨진 것이다. 잠시 후 그녀는 무거운 트렁크를 끌고 바그다드 카페에 도착한다. 자신을 열심히 도와주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한 남편을 방금 막 어디론가 쫓아버린 흑인여성 브렌다가 주유소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 지 몰라 홀로 모텔에 여장을 풀 야스민을 주인 브렌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며칠 후 브렌다는 야스민의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남성용 세면도구와 옷가지 등을 발견하고 경찰을 부르지만 독일인 여행자임을 확인할 뿐이다. 헤어질 때 실수로 바뀐, 똑 같은 크기와 모양의 남편 가방을 가져 온 것이다. 이후 야스민은 브렌다의 어지러운 사무실과 지저분한 카페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탱크, 모텔간판, 지붕까지 대대적인 청소를 감행한다. 이런 야스민의 행동에 브렌다는 처음에는 크게 화를 내지만 차츰 그녀의 행동을 용인하게 된다. 또한 야스민은 브렌다의 철없는 딸 필리스가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 왔을 때 바바리안 의상을 입어보게 하고, 오로지 음악에만 빠져있는 아들 살로몬의 클래식 연주를 진지하게 들어줌으로써 마음의 벽을 허문다. 또한 야스민은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매직(마술)세트의 설명서를 통해 매직을 익혀 카페의 손님들을 즐겁게 해준다. 카페는 소문이 나고 손님들이 밀려든다. 하지만 여행비자가 만료되어 야스민은 독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카페는 다시 예전처럼 한산해진다. 야스민의 부재를 몹시 아쉬워하며 쓸쓸하게 지내던 브렌다는 야스민이 독일에서 다시 돌아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그림4]. 그리고 바그다드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이번에는 브렌다와 그의 가족, 화가까지도 모두 매직쇼에 참여하여 몰려드는 손님들을 즐겁게 한다. 그 사이 야스민을 좋아하게 된 화가 루디가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 그림 4

<바그다드 카페>의 한 장면



상호문화적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독일인 야스민과 바그다드 카페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마주치게 되는 문화적 낯섬을 오픈닝 장면부터 여기저기 배치해 놓고 있다. 배경은 황량한 서부 사막지역이지만 여행자 야스민의 모습과 행동은 전형적인 독일인의 그것이다. 즉 바바리안 민속음악이 흘러나오는 미국산 자동차에서 내린 야스민이 남편이 버린 캔을 주운 후 깃털이 달린 독일 남부 티롤 지방 모자를 쓰고 서 있는 바바리안 복장의 모습은 황량한 사막의 배경과 대조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후 남편이 사막 도로변에 내려놓은 ‘로젠하임’이란 상표가 붙은 커피메이커는 독일문화라는 배가 난파하여 미국문화라는 섬에 홀로 닻을 내린 것에 대한 상징기호로 읽기에 충분하다.

그 밖에도 독일적인 것을 말해주는 장면은 많다. 카페에 잠깐 들른 야스민의 남편은 맥주를 주문하고, 야스민은 남편의 가방에서 독일 바바리안 스타일의 가죽바지와 양말을 꺼내놓으며, 문신 그리는 여자 데비는 토마스 만의 『베니스의 죽음』이란 책을 읽고 브렌다의 아들은 바하의 음악을 연주한다. 또한 야스민이 원하는 진한 커피와 땀을 닦는 손수건의 문양<sup>10</sup>도 독일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스민의 청결의식 내지는 질서의식이다. 그녀는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그래서 그녀는 바그다드 카페에 부재했던 커피<sup>11</sup>와 함께 청결과 질서를 가져다 준다. 이것은 독일 로젠하임에서 야스민이 가져온 문화선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런 독일적인 것은 미국적인 것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야스민의 말끔하게 멋을 부린 복장과 화장한 얼굴은 황량한 사막을 배경으로 카메라에 잡히고, 야스민의 부지런함은 브렌다 가족들의 게으름과 대비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런 대비적 관계는 브렌다가 질서의식이라는 야스민의 다른 문화적 성향을 인정하면서 차츰 사라진다.

브렌다와 야스민 사이의 문화적 소통은 우선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2장에서 언급한 비어라허의 말에 의존하면, 브렌다는 낯선 독일문화와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친숙해지기”(Wierlacher, 2000, p. 20)를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화가 루디가 야스민을 모델로 그리는 초상화를 통해서도 문화적 소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야스민은 할리우드에서 온 화가 루디 앞에서 처음엔 바바리안 전통복장을 입은 모습으로, 그리고 차츰 옷을 하나씩 벗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모델이 되어 준다. 이것은 문화적 소통을 시도하는 야스민의 태도변화를 암시하는 은유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문화적 소통은 대조적으로 매직을 통해서 급속도로

<sup>10</sup> 하얀색과 남색의 마름모꼴 무늬의 손수건 문양은 바이에른 주의 깃발 문양과 흡사하다. 뮌헨에 본사를 둔 자동차회사 BMW 로고에 쓰인 색상도 바이에른 주의 깃발 문양 색상과 동일하다.

<sup>11</sup> 야스민을 찾던 남편이 잠깐 들른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소설가 김경욱은 이 영화의 장면에서 읽을 수 있는 부재의 의미에 주목하여 1996년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란 제목의 창작집을 출간하였다. 김경욱. (2000).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고려원.

진척된다. 무료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야스민은 남편가방에서 나온 매직세트를 통해 매직을 배워 브렌다의 가족과 바그다드 카페 거주자들을 즐겁게 하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손님들과 함께 매직쇼를 함께 즐기는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 매직이 문화간 벽을 단숨에 허물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 셈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교육의 관점에서 이 영화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이 영화에서 독일문화와 미국문화의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표현이나 상징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2. 야스민과 브렌다, 혹은 독일문화와 미국문화 사이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3. 이 영화에서 야스민이 미국 문화에 대해, 그리고 브렌다가 독일문화에 대해 편견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들인가?
4. 형식미학적 측면에서 음악, 색채 이미지 등은 문화적 소통이란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5. 상호문화적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문화적 소통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 영화를 근거로 해서 말해 보시오.
6. 이 영화와 김경옥이 쓴 소설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를 비교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어떻게 다르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말해보자.
7. 우리문화와 미국문화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야기 해보자.

#### IV. 나가는 말

이 글은 독일문화가 아시아권의 일본문화, 유럽의 이탈리아 문화, 이슬람 지역의 터키 문화, 그리고 아메리카의 미국문화와 만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자기 성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독일영화들, 즉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술리노>, <미치고 싶을 때>, <바그다드 카페>를 선택하여 상호문화적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본 문화와 소통하려는 독일인 노부부의 이야기를, <술리노>는 ‘저먼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온 이주노동자와 그들 자식들이 독일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미치고 싶을 때>는 독일에서 사는 터키 이주민 2세대가 겪는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찾기의 문제를, 그리고 <바그다드 카페>는 독일인 중년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지역을 여행하다 미국문화와 만나 소통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수업에서 다룬 영화들에 대한 이와 같은 면밀한 고찰은 교수자가 학습자로 하여금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기하는 교수법적 질문들을 매우 유효하게 만든다. 물론 여기에 제시한 질문들은 예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교수자(教授者)와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내지는 축소, 혹은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 편의 독일영화를 대학의 한 학기(15주 기준) 수업에서 다룬 경우, 먼저 2주 동안 다문화 사회의 현황과 담론들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고찰을 진행한 다음, 각 영화마다 3주에 걸쳐 영화감상 및 영화평 쓰기, 영화 분석 및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토론하기 순으로 수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화는 다른 어떤 미디어 텍스트보다도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위해 유용한 교육 제재(題材)임에 틀림없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영화도 주목할 수 있는데, 특히 다문화 사회의 여러 양상을 잘 형상화한 독일영화들은 아직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담론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학습자를 위해 교육대상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결국 이런 독일영화들을 다루는 문화수업은 공존, 융화, 소통 등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옥. (2000).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서울: 고려원.
- 김유동. (2007). 굴절, 반복 그리고 귀환: 파티 아킨 Fatih Akin의 영화 <Gegen die Wand>. *독어교육*, 39, 379-407.
- 이광복. (2003). 하이네 수용과 상호문화적 성찰. *독어교육*, 28, 35-57.
- 이소영. (2010). 영화의 복잡한 소통구조를 제시하는 은유 분석 - 영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에 나타나는 태생의 은유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113, 79-101.
- 이숙경. (2009). 문화강의를 위한 모델 - 다문화 담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킨의 극영화 <천국의 가장자리>. *카프카연구*, 21, 177-200.
- 최경은. (2009). 독일영화에 나타난 이주민. *유럽사회문화*, 2, 1-19.
- 최석희. (2011). 다문화관점에서 본 독일영화 -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와 <미치고 싶을 때>를 중심으로. *해세연구*, 26, 235-254.
- Albrecht, C. (1997). Überlegungen zum Konzept der Interkulturalität. In Y. Bizeul, U. Bliesener, & M. Prawda (Eds.), *Vom Umgang mit dem Fremden*. Basel: Beltz.
- Gemend, M., Schröe, W., & Sting, S. (Eds.). (1999). *Zwischen den Kulturen*. Weinheim & München: Juventa.
- Haase, C. (2007). *When Heimat meets Hollywood*. New York: Camden House.

- Krusche, D. (1990). Die Kategorie der Fremde. Eine Problemskizze. In D. Krusche & A. Wierlacher (Eds.), *Hermeneutik der Fremde* (pp. 47-56). München: Iudicium.
- Schäffler, D. (2012). *Deutscher Film mit türkischer Seele*. Saarbrücken: AV Akademikerverlag.
- Steltz, C. (2006). "Pizza? Das ist doch Brot mit Tomate, oder?" In C. Dawidowski & D. Wrobel (Eds.), *Interkultureller Literaturunterricht* (pp. 167-188).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 Wierlacher, A. (1977). Literatur und ihre Vermittlung. Aspekte einer Literaturwissenschaft des deutschen als Fremdsprache.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3, 77-79.
- Wierlacher, A. (Eds.). (2000). *Das Fremde und das Eigene. Prolegomena zu einer interkulturellen Germanistik*. München: Iudicium.
-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2012.10.30]
-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20102.10.30]
- DVD: *바그다드 카페(Bagdad Café)*. 에이나인미디어. 2004.
- DVD: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Kirschblüten)*. 아인스M&M. 2009.
- DVD: *미치고 싶을 때(Head On)*. 위전. 2004.
- DVD: *Solino*. Wüste Film. 2002.

이광복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화학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전 화: 061) 450-2693

이메일: leekww@mokpo.ac.kr

Received on August 23, 2012

Reviewed on October 29,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9, 2012

Accepted on December 5, 2012